

## 학교에서의 환경보전·개발 사업

- 1 **지자체명** 러시아 연해주 지방
- 2 **발표자** 로스랴코와 와렌티나(Roslyakova Valentina)  
연해 지방 다리네레이첸스크시(Dalneryechensk)  
제2중학교 7년생
- 3 **활동명** 학교에서의 환경보전·개발 사업 연구  
(식물 재배, 학교 주변에 있는 강의 정화 활동, 학교 주변 자연 환경 연구와 연해주 지방의 생물 다양성을 소개하는 강습회 실시)
- 4 **활동 기간** 식물 재배- 약 2년간, 강습회 실시-11년간  
학교주변 자연환경보전연구-10년간, 강의 정화 활동-2년간
- 5 **활동 장소** 다리네레이첸스크시 제2중학교 주변, 학교 주변에 있는 강
- 6 **활동 참가인원** 식물 재배-30명, 강습회 실시-10명  
학교주변 자연환경보전연구-5명, 강의 정화 활동-30명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주위의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식물의 재배 방법에 대해 배운다.

강습 실시단 중에서 강습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연해 지방의 자연 환경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배운 것을 강습 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전한다. 다른 환경보전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위 환경의 현상에 대해 배워야 한다.

학교 주변의 자연 환경 연구에 의해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쓰레기 문제와 그것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쓰레기의 올바른 수거 방법, 재활용법 등에 관한 지식을 높인다.

### 8 발표 요지

다리네레이첸스크시는 연해주 지방 북서 우스리강, 보리샤야우스르카(Bolshaya Ussurka), 마리노 상어(Malinovka) 강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학교는 시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학교 남쪽에는 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레이니나(Lenina) 대로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그 밖에도 2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만 어느쪽이든 그렇게 교통량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 주위에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는 학교와 길 사이를 구별하고 소음을 억제하며 시원함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학교의 건물 주변에는 큰 화단이 있습니다. 2005~2006년에 화단용 꽃 모종을 학생들이 직접 길렀습니다. 일부 모종은 생물학 교실내에 나머지는 학생들 집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4월에 꽃씨를 준비된 상자안에 심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장 상태를 확인하여 일기에 기록합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집과 생물학 교실 내에서 기르고 있는 모종의 성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모종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께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5월말에는 모두의 일기를 모아 의견교환회를 실시하고 기른 모종을 학교 주위의 화단에 옮겨 심습니다. 8월말에는 모든 꽃이 활짝 피어 아주 예쁩니다.

화단안에 스스로 기른 모종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기른 식물은 학교 주변의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한 장래에 사회인으로서의 생활 할때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1996년에 학교에서 “강습 실시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멤버는 주로 7~8학년생으로 생물

학 교사의 지도를 받아 연해주 지방 자연 환경과 동·식물계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를 모아서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강습회는 아무르 호랑이를 테마로 한 것이었습니다. 수 년간에 걸쳐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나 오디오 자료, 잡지에 실려있는 사진이나 전문 문헌 등입니다.

강습회 마지막에는 퀴즈를 내어, 우승자에게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참가상을 줍니다.

대부분의 강습회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것 입니다. 강습회 자료를 모으다보면 담당자들도 연해주 지방의 자연 환경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강습회 때 스스로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가지 더 전통이 있습니다. 보리샤야웃스르카 강 기슭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날을 「건강의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가 하는 운동회와 같은 것입니다. 각 반 별로 팀을 만들어 여러가지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제일 빨리 불을 일으킬 수 있는지, 누가 먼저 텐트를 펼 수 있는지 등입니다. 각 팀 마다 캠프를 만들고 난 후, 모두 낚시한 물고기로 스프를 만들어 먹습니다. 돌아갈 때는 모두가 뒷정리를 깨끗이 합니다. 본인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난 후에 강 기슭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어질러져 있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매년 1회, 4월 「지구의 날」에 모든 학생들은 환경보전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 하여 학교내의 쓰레기 수거, 나무 소독, 나무가지 자르기 등을 합니다. 작년에는 학교 내 8곳에 새로운 새둥지 상자가 설치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마르스(Malus) 학교내 연구소에서 여러가지 환경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실내 환경, 수도 수질, 학교 주변의 교통량과 학생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가장 효율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여러가지 분야의 환경 사업에 참가 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5~2006년에 다리네레이첸스크 시립 사회경제 대학에 의해 개최된 「젊은이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과학 심포지엄에 참가 했습니다. 환경 부문에서 「생활 쓰레기의 처리 방법과 연구」와 「학교와 가정 환경에 의해 미치는 건강에의 영향」 2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9 활동 결과에 대해서

식물 모종을 기르면서 중학생들이 식물 재배를 체험할 수 있으며 또 스스로 기른 식물을 통해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연 환경을 지키려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해 공부한 결과 모든 생물은 주어진 환경속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생물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 또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 나갑니다.

현재 학생들에 의한 환경 연구는 계속 실천되고 있고 「건강에 미치는 학교와 가정 환경의 영향」의 연구 결과는 보호자들에게도 소개되었습니다.